

KBS 2025 1st S.O.

©Takafumi Ueno

지휘 / 정명훈

소프라노 / 최지은, 메조-소프라노 / 양송미

테너 / 손지훈, 바리톤 / 김기훈

고양시립합창단, 서울모데트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KBS교향악단
제821회 정기연주회**

2025.12.27. SAT 17: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KBS  교향악단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KBS S.O. 821st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베토벤 교향곡
L. v. Beethoven

제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Symphony No. 9 in d minor, Op. 125 ‘Choral’

Ⓢ 65'

I. Allegro ma non troppo, un poco maestoso
지나치게 빠르지 않게, 얼마간 장엄하게 (15')

II. Molto vivace
매우 빠르게 (13')

III. Adagio molto e cantabile
매우 느리고 노래하듯이 (13')

IV. Presto – Allegro assai
빠르게 – 매우 빠르게 (24')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연은 1곡으로 인터미션 없이 진행됩니다.



©Takafumi Ueno

지휘 정명훈

Conductor Myung-Whun Chung

“그는 영적인 지휘자”

<르 몽드>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이 시대에 가장 깊은 존경과 추앙을 받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세계 유수 오페라극장의 포디움에 올랐다.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피렌체 테아트로 코무날레 수석객원지휘자,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 로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했고, 현재 KBS교향악단 계관지휘자,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수석객원지휘자,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명예음악감독,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명예음악감독과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3월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역대 최초 명예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2027년부터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247년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인 음악감독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1990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정명훈은 오페라 바스티유와 함께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도이치 그라모폰을 비롯해 주요 레이블을 통해 40여 종의 음반을 발매했다.

2011년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교류에 공헌했으며, 2017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의 정상들이 참석한 G7 국제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5년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고,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음악가 상’, 2011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뒤르’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3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평생 음악상’, 2017년 이탈리아의 국가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소프라노 최지은

Soprano Jieun Choi

소프라노 최지은은 풍부한 음색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주목받고 있는 성악가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한 후, 독일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현재 동 대학에서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에 재학 중이다. 그동안 이정민, 김순연, 홍주영, 그리고 Prof. Ewa Wolak을 사사하였다.

최지은은 국립오페라단 콩쿠르, KBS·한전음악콩쿠르,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 콩쿠르, 라이프치히 바그너 콩쿠르 등 국내외 우수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2024년 베르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였고, 2025년 스페인의 권위 있는 비냐스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적인 입지를 더욱 굳혔다. 오페라 무대에서는 <라 보엠>의 미미, <나비부인>의 초초상, <마술피리>, <마탄의 사수> 등 다양한 작품에서 섬세한 연기력과 탁월한 음악성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한국 국립오페라단 <피가로의 결혼> 백작부인 역, 도이체 오퍼 베를린 <아이다> 타이틀 롤로 성공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현재 IMG Artists 소속 아티스트,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인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Mezzo-Soprano Songmi Yang

메조-소프라노 양송미

양송미는 한국인 메조-소프라노로서는 최초로 세계 3대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인 빈 국립오페라 극장에 데뷔하여 지휘자 다니엘레 가띠, 마르첼로 비오띠, 레나토 팔룸보, 오스트리아의 오페라 그라츠에서 지휘자 필립 조르단, 요하네스 슈테어트 등과 함께 공연하였다.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오스트리아 그라츠 국립음대에서 Bakk. art.와 Mag. art.학위를 취득했다. 동아 음악콩쿠르와 스페인 비냐스 콩쿠르에서 입상하였으며, 2019년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여자 주역상을 수상하였다.

2004년 한국에 귀국한 후 국립오페라단, 서울시오페라단, 예술의전당 오페라를 포함한 여러 단체에서 초청받아 국립오페라단의 국내초연 오페라 무소르그스키 <보리스 고두노프>, 모차르트 <이도메네오>, 드보르작 <루살카>의 주역을 비롯하여 <라인의 황금>, <카르멘>, <노르마>, <베르테르>, <리골레토> 등 다수 오페라 주역을 공연하였다. 도이치 그라모폰 서울시향 공연실황 음반에 베토벤 <교향곡 제9번>의 알토 솔로이스트로 참여했으며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국립 심포니, 부천 필하모닉, 국립합창단 외에 전국 시, 도립합창단과 교향악단에서 초청받아 베르디 <레퀴엠>, 말러 <교향곡 2, 4, 8번> 등의 솔로이스트로 참여하였다. 2014년 런던시 페스티벌의 한국 성악가로 초청되었으며 현재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테너 손지훈

Tenor Jihoon Son

2023년 차이콥스키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은 테너 손지훈은 리릭, 스피토, 레체로 테너의 장점을 겸비한 섬세하고 강렬한 고음으로 활동 중이다. 2022년 몽세라 카바예, 비오티, 보이스 오브 카멘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하며 차이콥스키 콩쿠르 이전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스위스에서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아놀드 역으로 호평을 받았고,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에서 <사랑의 묘약>, <청교도>, <아라벨라>, <루살카>, <라 보엠> 등 주역을 맡았다. 호브로스토프스키 페스티벌에서는 아이다 가리폴리나와 폐막 듀오 콘서트를 가졌다. 국내에서는 성정, 파파로티, 세일 콩쿠르에서 수상하였고, 국립 오페라단 <라 보엠>, <윌리엄 텔>, 부천아트센터 개관 기념 듀오 콘서트 등 주요 무대에 섰다. 2025~2026년 시즌에는 마린스키 극장, 오비에도 캄포아모르 극장, 런던 로열오페라하우스에서 <신데렐라>, <연대의 딸>, <청교도>, <마리아 스투아르다> 주역으로 예정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루살카>,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정명훈 지휘 <피델리오> 등 굵직한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원헨국립음대를 졸업하였고, 세아이운형문화재단 후원 인재로 활동 중이다.

Baritone Gihoon Kim

바리톤 김기훈



바리톤 김기훈은 2021년 영국 공영방송인 BBC가 주최하는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한국 성악가 최초로 우승하며 세계 무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미 2019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남자성악부문 2위, 2019 ‘오페랄리아’ 2위 및 청중상을 연이어 수상하였고 오페라 전문 채널 오페라와이어에서 선정한 ‘2021 월드 라이징 스타 10인’에 이름을 올렸다. 2023년 대한민국 오페라어워즈와 2024년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했다.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수석 졸업,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과정 만점 졸업,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기훈은 2015 성정음악콩쿠르 최우수상 수상, 2016 서울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였다.

2016년부터 3년간 독일 하노버 슈타츠오퍼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였다. 거장 지휘자 발레리 게르기예프의 초청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제르몽 역으로 출연했다.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 독일 도이치오퍼 베를린, 로스톡 극장, 원헨 국립극장, 덴마크 로열대니쉬 오페라극장, 영국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미국 케네디 센터, 텍사스 달라스 오페라 등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김기훈은 2024년 <라 보엠>으로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에 데뷔하였다. 25/26시즌에는 베를린필하모니와 협연,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데뷔가 예정되어 있다.



상임지휘자
김종현

고양시립합창단

Goyang Civic Choir

고양특례시를 대표하는 문화사절단인 고양시립합창단은 2003년에 창단하여 정기연주회,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등 매년 80여 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공연으로 고양 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합창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사람 중심, 시민 제일주의를 수행하며 다양한 형태의 합창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양시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지휘자 김종현을 제8대 상임지휘자로 받아들이며 또 한 번의 비상을 추구하고 있다.

서울모테트합창단

Seoul Motet Choir

상임지휘자
박치용



서울모테트합창단은 1989년 창단된 대한민국 유일의 민간 프로페셔널 합창단으로, 최상의 합창음악을 선보이며 한국 음악문화를 선도해 왔다. 1997년 존 루터, 2013년 헬무트 릴링과의 협연을 비롯해 세계적 음악가들로부터 음악성과 연주력을 인정받았으며, 1,600여 회의 공연을 통해 르네상스부터 현대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였다. 특히 바흐 음악 연구 및 연주로 한국 음악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상임지휘자
이충한

안양시립합창단

Anyang Civic Chorale

안양시립합창단은 1987년 창단되어 130여 회의 정기·기획 공연, 그리고 유수의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고전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가곡, 성가, 팝송 등을 담은 9장의 음반을 제작하였다. 2014년 제10회 세계합창심포지엄에 초청받아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무대에 올리는 등 수준 높은 예술성을 전 세계 합창계에 보여주며 세계 속에 한국 합창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베토벤
L. v. Beethoven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125 '합창'
Symphony No.9 in d minor, Op.125 'Choral'

작곡연도 1824년

초연 1824년 5월 7일, 오스트리아 빈

편성 합창,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플루트 2, 피콜로,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2, 트롬본 3, 팀파니, 큰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현 5부

연주 시간 약 65분

루트비히 판 베토벤(1770~1827)의 교향곡 제9번은 음악사뿐 아니라 인류 문화사를 통틀어 기념비적 작품이다. 그의 예술적 신념과 인간애의 결정체로 평가받는 이 웅대한 걸작은 평탄한 여정 속에서 태어나지는 않았다.

1810년대 초반부터 베토벤은 심화하는 청력 상실로 외부 세계와 소통이 거의 단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넘어 예술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신념 아래 작곡을 계속했다. 당시 빈은 나폴레옹 전쟁 이후 정치사회의 긴장이 여전했으며, 보수 질서가 회복된 시기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베토벤은 인간 정신의 자유와 평등을 노래한 시인 프리드리히 실러의 ‘환희에 부쳐(An die Freude)’에 깊이 감명받았고, 이미 1792년부터 이 시를 교향곡에 도입하려는 구상을 품고 있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된 것은 그의 예술이 가장 심원한 단계에 이른 1820년대 초였다. 청력은 거의 상실되었지만, 내면의 세계에서 거대한 음향을 그려냈다. 1818년경부터 제9번 교향곡의 스케치를 시작했고, 인간의 목소리와 관현악을 결합해 ‘보편적 형제애’라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 이는 교향곡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시도였다.

1824년 5월 7일, 빈의 케른트너토어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지휘는 베토벤이 맡았지만 실제로는 미하엘 움라우프가 이끌었다.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관객의 환호 속에 자신의 작품이 전하는 환희와 인간적 메시지를 느꼈던 일화는 지금도 전설로 내려온다.

I. Allegro ma non troppo, un poco maestoso

제1악장은 모호한 화성으로 시작한다. 마치 혼돈 속에서 우주가 생성되는 듯한 신비스러운 분위기다. 간결하면서도 장대한 제1주제가 등장하면, 비로소 베토벤 특유의 힘과 장엄함이 드러나며, 천지창조를 연상시키는 극적인 울림을 만든다. 이어 호른과 목관이 천상의 노래처럼 제2주제를 연주한다. 전개부에서는 혼란스러운 에너지가 고조되고, 재현부를 거쳐 제1주제가 코다에서 장대하게 마무리된다. 흑암 속에서 광명이 솟아오르는 듯한 대비가 극적이다.

II. Molto vivace

유머러스한 스케르초의 제2악장은 천둥 같은 팀파니가 지배한다. 동시에 날카로우며, 긴장과 활력이 교차한다. 중간부(트리오)는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전환되어, 자연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멜로디가 아름답다. 목동의 호른 선율은 마지막 악장 ‘환희의 송가’로 이어지는 예고편처럼 들리며, 악장 전체에 다채로운 색채와 생동감이 가득하다.

III. Adagio molto e cantabile

사랑과 평온함으로 가득한 제3악장은 베토벤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숭고한 악장으로 꼽힌다. 서정적인 현악군의 제1주제가 목관의 응답과 함께 유려하게 펼쳐지고, 변주를 거듭하며 점점 풍성한 정서와 장대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장중하게 울리는 트럼펫은 절대자를 상징하며, 인간 내면의 순수한 평화를 표현한다.

IV. Presto – Allegro assai

제4악장은 격렬한 전주로 시작한다. 앞선 세 악장의 주제를 회상하고 부정하며, 마침내 주제 선율이 등장한다. 변주되며 점차 확장될 때, 바리톤 독창이 “오, 벗들이여! 이런 소리가 아니오!”라 외친다. 이는 순수 기악의 시대를 넘어 인류의 목소리로 완성되는 베토벤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다. 곧이어 웅장한 합창과 독창이 합류하여 ‘환희의 송가’를 장대하게 노래한다. 주제는 웅대한 푸가토로 전개되며, 기악과 성악이 함께 어우러진 장엄한 피날레는, 모든 인간이 하나가 되는 초월적 환희를 청중에게 전한다. 베토벤의 육필 악보에는 ‘Seid umschlungen, Millionen(백만인이여, 서로 껴안으라)’라는 글귀가 남아 있는데, 그 정신이 이 악장에서 극적으로 구현된다.

본작은 이전 작품과 차원이 다른 규모와 깊이를 지니며, 말년의 피아노 소나타, 현악사중주, 장엄미사와 더불어 그가 도달한 궁극의 경지를 보여준다. 어둠을 넘어 빛으로, 고난을 넘어 환희로 나가는 인류애적 이상이 형상화된 문화유산이다.

글 | 김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YouTube

KBS교향악단

Lyrics
Beethoven, Symphony No. 9

O Freunde,
nicht diese Töne!
Sondern laßt uns angenehmere anstimmen,
und freudenvollere!
Freude! (Freude!)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Wem der große Wurf gelungen,
eines Freundes Freund zu sein,
Wer ein holdes Weib errungen,
mische seinen Jubel ein!
Ja, wer auch nur eine Seele
sein nennt auf dem Erdenrund!
Und wer's nie gekonnt, der stehle
weinend sich aus diesem Bund!

Freude trinken alle Wesen
an den Brüsten der Natur,
Alle Guten, alle Bösen
folgen ihrer Rosenspur.
Küsse gab sie uns und Reben,
einen Freund, geprüft im Tod;
Wollust ward dem Wurm gegeben,
und der Cherub steht vor Gott.

오, 벗들이여,
이 선율이 아니오!
더 즐겁고 기쁨에 찬 노래를
부르지 않겠는가!
환희여! (환희여!)
환희여,
신의 아름다운 불꽃이여,
낙원의 딸이여,
우리 모두 그 불에 취해
하늘에 있는 당신의 성소로 들어가나이다!
시류가 전적으로 갈라놓았던 것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으로 다시 결합시키니,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르는 곳에서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진실된 우정을 얻는
위대한 하늘의 선물을 받은 자여,
여성의 따뜻한 사랑을 얻은 자여,
다 함께 환희의 노래를 부르자!
이 땅에 영혼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함께 부르자!
그리고 그조차 가지지 못한 자는
눈물 흘리며 조용히 떠나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자연의 품에서 환희를 마시고
모든 선인이나, 악인이나
환희 속에 장미 발자취를 따른다.
환희는 우리에게 입맞춤과 포도주, 그리고
죽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친구를 주며,
패락은 벌레의 똥이 되고,
비로소 천사는 신 앞에 서게 된다.

Froh, froh, wie seine Sonnen fliegendurch
des Himmels prächt'gen Plan,
Laufet, Brüder, eure Bahn,
freudig, wie ein Held zum Siegen!
Freude,
schöner Götterfunken,
Tochter aus Elysium,
Wir betreten feuertrunken,
Himmlische, dein Heiligtum!
Deine Zauber binden wieder
was die Mode streng geteilt;
Alle Menschen werden Brüder,
wo dein sanfter Flügel weilt.

Seid umschlungen, Millionen!
Diesen Kuß der ganzen Welt!
Brüder, über'm Sternenzelt
muß ein lieber Vater wohnen.

Ihr stürzt nieder, Millionen?
Ahnest du den Schöpfer, Welt?
Such' ihn über'm Sternenzelt!
Über Sternen muß er wohnen.
Brüder, über'm Sternenzelt
muß ein lieber Vater wohnen.

Seid umschlungen, Millionen!
Diesen Kuß der ganzen Welt!
Brüder, über'm Sternenzelt
muß ein lieber Vater wohnen.
Seid umschlungen!
Diesen Kuß der ganzen Welt!

기뻐하라, 태양이 하늘의
장엄한 계획에 따라 날아가듯
형제여, 영웅이 승리를 갈구하듯
환희의 길로 기쁘게 달려가라!
환희여,
신의 아름다운 불꽃이며,
낙원의 딸이며,
우리 모두 그 불에 취해
하늘에 있는 당신의 성소로 들어가나이다!
시류가 전적으로 갈라놓았던 것을
신비로운 그대의 힘으로 다시 결합시키니,
그대의 부드러운 날개가 머무르는 곳에서
모든 인간은 형제가 되노라.

안겨라, 만민이여!
온 세상에 이 입맞춤을 주노라!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계신다.

세상의 만민이여, 엮드려 예를 갖추는가?
너희는 창조주가 계심을 느끼는가?
별 너머에 계신 그분을 찾으라!
별 위에 그분은 분명히 계신다.
형제여, 별 하늘 저 너머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계신다.

안겨라, 만민이여!
온 세상에 이 입맞춤을 주노라!
형제여, 별 하늘 저 너머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계신다.
안겨라!
온 세상에 이 입맞춤을 주노라!

Special Article I 2025 Season Review

글·구성 KBS교향악단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입니다. 프로그램노트처럼 전문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여전히 평론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번 ‘2025 시즌 리뷰’는 온라인에 축적된 다양한 평가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롭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객 후기, 언론 기고, 공연 리뷰 등 공개된 자료를 폭넓게 살펴보고, 이를 분석해 2025년 KBS교향악단의 주요 장면과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전통적인 리뷰 방식과는 조금 다른 접근으로, 오늘의 관객이 바라본 KBS교향악단의 한 해를 함께 담고자 했습니다.

확장과 밀도를 향한 2025년 KBS교향악단

2025년 KBS교향악단의 한 해는 ‘확장’과 ‘밀도’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시즌이었다. 세대의 교차,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넓은 레퍼토리,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는 협업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어진 공연들은 서로 성격이 달랐지만 하나의 방향을 향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거장 지휘자와 신예 솔리스트가 만들어낸 긴장감 있는 조화는 오케스트라가 지닌 내적 힘을 다시 확인시키는 장면이었고, 레퍼토리의 폭은 더욱 넓어지며 ‘한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2025년은 단순히 화제성 있는 무대의 연속이 아니라, KBS교향악단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여러 실험과 모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해였다.

세대를 잇는 출발 — 강렬한 오프닝의 에너지

2025년 시즌의 출발점은 제810회 정기연주회였다. 90세 거장 엘리야 후 인발과 19세 첼리스트 한재민이라는 상징적인 조합은, 단순한 라인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제1번>에서 한재민은 날 선 리듬과 섬세한 음색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젊은 세대의 감각”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인발은 노련한 균형감과 안정된 구조 해석으로 오케스트라를 단단히 이끌어, 세대가 충돌하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드문 장면을 만들어냈다. 이어진 베르토크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에서는 현·관·타악이 서로의 결을 유지하면서도 일관된 방향성을 잃지 않아, 시즌 오프닝에서 드문 밀도감을 만들어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2025 REVIEW

시즌 초반의 기세는 제811회 정기연주회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로 이어졌다. 정명훈의 해석은 장대한 스케일과 서사적 완결성을 기반으로, “말러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한 공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5악장의 피날레에서 합창과 오케스트라가 폭발적으로 맞물리는 순간은 많은 관객들로부터 올해 최고 장면 중 하나로 꼽혔다. 하지만 작품의 난도만큼이나 음향 밸런스에 대한 다양한 해석도 존재했으며, 이는 오히려 악단이 대작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제810회와 811회는 세대와 스케일에서 서로 대비되면서도, 오케스트라가 한 해 동안 무엇을 추구하려 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출발점이었다.



깊이의 확장 — 브람스와 중반기 레퍼토리의 내실

브람스 전곡 시리즈는 2025년 KBS교향악단의 기량을 가장 안정적으로 드러낸 프로젝트였다. 롯데콘서트홀에서 울려 퍼진 브람스 <교향곡 제3번, 제4번>은 ‘기본에 충실함’과 ‘음향의 밀도’라는 두 요소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교향곡 제3번>에서는 넓고 긴 호흡의 악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서정적이고 유려한 흐름을 만들었고, 느린 악장에서 드러난 현악의 깊은 음색은 브람스 특유의 온기와 서정을 더욱 풍부하게 채웠다. 반면 <교향곡 제4번>에서는 치밀한 구조적 균형감이 강조되었고, 마지막 악장의 반복 변주가 점차 고조되며 응축된 긴장감을 형성해 오케스트라의 앙상블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순간이 되었다.

중반기 정기연주회에서는 바흐·라벨·라흐마니노프·코플랜드 등 레퍼토리의 스펙트럼이 한층 더 넓어졌다. 특정 작곡가나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병렬적으로 보여준 점은 오케스트라가 점진적으로 색채를 확장해가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특히 현대음악과 고전 레퍼토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프로그램 구성은, KBS교향악단이 단지 고전의 재현을 넘어 동시대의 음악어법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눈에 띄는 화제가 된 공연은 아니었지만, 시즌 전체의 균형을 잡아 주는 핵심적 기반이 되어 오케스트라의 성숙도를 보여준 시간이기도 했다.



새로운 세대의 감각 — 젊은 협연자들과의 만남

2025년 하반기 정기연주회(816회~819회)는 KBS교향악단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모든 협연자를 1990년대생으로 구성한 이 시리즈는, 클래식이 특정 세대의 음악이라는 오래된 인식을 걷어내고 새로운 관객층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였다. 제816회에서는 드미트리 시쉬킨이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통해 정교한 기교와 세련된 낭만성을 드러냈고, 이는 SNS 기반의 젊은 팬층과의 자연스러운 연결로 이어졌다. 제817회에서는 후지타 마오가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5번>을 과도한 장식 없이 절제된 페달링과 섬세한 터치로 풀어내며, 거장 정명훈과 대비되는 신선한 해석을 제시했다.



제818회에서는 제스 길럼이 등장해 존 애덤스 색소폰 협주곡의 국내 초연을 이끌며 클래식 음악의 경계를 확장했다. 색소폰이라는 비교적 낯선 악기가 오케스트라와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순간은 많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클래식의 언어’를 체감하게 했다. 이어진 제819회에서는 줄리아드 출신 랜들 구스비가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통해 탄탄한 기본기와 현대적 감각이 결합된 해석을 들려주었다. 젊은 해석이 전통 레퍼토리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은, KBS교향악단이 추구하는 ‘확장된 감각’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하반기 시즌의 색채를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정점과 도약 — 쇼스타코비치와 국제 협업

2025년의 정점은 단연 제820회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1번>이었다. 레너드 슬라트킨의 지휘 아래 타악·금관·현악이 만들어낸 파노라마적 음향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20세기 역사와 폭력성을 소리로 체험하게 하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특히 3·4악장에서 이어지는 절정은 관객들로부터 “귀로 보는 역사적 장면”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 강렬했다. ‘사운드 드라마’라는 표현이 정확히 들어맞는 공연이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한 도쿄필하모니와의 합동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양국의 대표 오케스트라가 하나의 앙상블로 호흡한 이 무대는 동아시아 음악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순간으로 평가받았다. 일본 악단의 정밀한 사운드와 KBS교향악단의 직접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음향이 서로 대비되면서도 조화를 이뤄, 국제적 협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2025년 KBS교향악단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

2025년은 단순히 한 시즌을 마무리한 해가 아니다. 세대의 교차, 레퍼토리의 확장, 젊은 해석의 유입, 국제적 협업까지 이어진 과정을 통해 KBS교향악단은 더욱 입체적이고 풍부한 색채를 갖게 되었다. 올해의 행보는 다음 시즌을 기대하게 만드는 설득력 있는 토대였으며, KBS교향악단이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2025년의 기록은 곧 다음 시대의 출발점이며, 오케스트라는 여전히 성장 중이다.



2026

SUBSCRIPTION

제822회

1월 16일(금) 20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정명훈
바이올린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베토벤 교향곡 제3번 E♭장조, 작품 55 '영웅'

R 120,000원 S 100,000원 A 70,000원 B 40,000원 C 10,000원

제823회

2월 28일(토) 1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엘리야후 인발
베이스 그리고리 슈카루파

라흐마니노프 죽음의 섬, 작품 29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3번 b♭단조, 작품 113 '바비 아르'

R 110,000원 S 90,000원 A 60,000원 B 30,000원 C 10,000원

제824회

3월 31일(화)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마렉 야노프스키
클라리넷 김한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K.622
브루크너
교향곡 제4번 E♭장조, WAB 104 '낭만적'

R 100,000원 S 80,000원 A 50,000원 B 30,000원 C 10,000원

제825회

4월 18일(토) 19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정명훈
카르멘 알리사 콜로소바
돈 호세 갈레아노 살라스
에스카미요 김병길
미카엘라 김순영 외

비제 오페라 <카르멘> (콘서트 버전)

R 150,000원 S 120,000원 A 80,000원 B 50,000원 C 10,000원

제826회

5월 28일(목)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요엘 레비
피아노 이혁 & 이효

플랑크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d단조, FP 61
말러 교향곡 제6번 a단조 '비극적'

R 120,000원 S 100,000원 A 70,000원 B 40,000원 C 10,000원

제827회

6월 18일(목) 20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
피아노 브루스 리우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b♭단조, 작품 23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 e단조, 작품 64

R 120,000원 S 100,000원 A 70,000원 B 40,000원 C 10,000원

CONCERTS

정기연주회

제828회

7월 9일(목) 20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안토니 헤르무스
바이올린 네만야 라두로비치

바게나르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 서곡, 작품 23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g단조, 작품 63
라흐마니노프 교향적 무곡, 작품 45

R 110,000원 S 90,000원 A 60,000원 B 30,000원 C 10,000원

제829회

8월 27일(목)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정명훈
피아노 김세현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c단조, 작품 18
프로코피예프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중 발레

R 120,000원 S 100,000원 A 70,000원 B 40,000원 C 10,000원

제830회

9월 10일(목) 20시
롯데콘서트홀



지휘 피에타리 잉키넨
피아노 보리스 길트버그

시벨리우스 포올라의 딸, 작품 49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g단조, 작품 16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6번 d단조, 작품 104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7번 C장조, 작품 105

R 120,000원 S 100,000원 A 70,000원 B 40,000원 C 10,000원

제831회

10월 30일(금)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미하엘 잔데를링
바이올린 프랑크 페터 짐머만

코른골트 헛소동 모음곡, 작품 11
월튼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제1번 g단조, 작품 25
(쾨넨호프 관현악 편곡)

R 110,000원 S 90,000원 A 60,000원 B 30,000원 C 10,000원

제832회

11월 28일(토) 17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로버트 스파노
첼로 스티븐 이설리스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슈만 첼로 협주곡 a단조, 작품 129
림스키-코르사코프 셰에라자드, 작품 35

R 100,000원 S 80,000원 A 50,000원 B 30,000원 C 10,000원

제833회

12월 30일(수)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장한나
협연자 추후 공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d단조, 작품 125 '합창'

R 150,000원 S 120,000원 A 80,000원 B 50,000원 C 10,000원

2026 PROJECT CONCERTS



라인업 영문 in English

기획연주회



마스터즈 시리즈 I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5번

3월 13일(금)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정명훈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네

말러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가곡 중 6곡
말러 교향곡 제5번 c#단조

R 150,000원 S 120,000원 A 80,000원 B 50,000원 C 10,000원



마스터즈 시리즈 II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4번

10월 2일(금) 20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지휘 정명훈
소프라노
크리스티아네 카르크

말러 <뤼케르트 가곡> 중 5곡
말러 교향곡 제4번 G장조

R 150,000원 S 120,000원 A 80,000원 B 50,000원 C 10,000원



KBS교향악단 창단 70주년 특별연주회

7월 22일(수) 20시 롯데콘서트홀

출연, 프로그램, 가격
2026.3. 오픈 예정

Special Article II 2026 Season Preview

글 최은규 (클래식 음악 평론가)

창단 70주년을 기념하는 화려한 축제

2026년, 창단 70주년을 맞이한 KBS교향악단의 프로그램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다. 말러와 쇼스타코비치, 라흐마니노프, 브루크너 등 대편성 관현악곡 중심의 프로그램은 창단 70주년을 기념하는 최고의 선곡이다. 지난 70년간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KBS교향악단의 뛰어난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일 뿐 아니라 교향악을 사랑하는 클래식 애호가들에게도 큰 만족감을 줄 것이다.

이번 시즌 지휘자들의 라인업과 그들이 선보일 작품들은 각별한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KBS교향악단을 객원 지휘해 호평을 받았던 거장 지휘자들이 그들의 대표 레퍼토리를 선보여서 눈길을 끈다. 말러 음악 해석의 권위자인 정명훈은 지난 시즌 말러 <교향곡 제1번>과 <제2번>에 이어 이번에는 말러 <교향곡 제4번>과 <제5번>을 선보이고, 쇼스타코비치 교향곡의 뛰어난 해석자인 엘리아후 인발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3번>을 지휘한다. 독일 관현악의 권위자 마렉 야노프스키는 브루크너 <교향곡 제4번>을, 시벨리우스 전문가 피에타리 잉키넨은 시벨리우스 <교향곡 제6번>과 <제7번>을, 브람스 음악해석에 인정을 받고 있는 미하엘 잔데를링은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제1번>의 관현악 버전을 선보인다. 또한 열정적인 지휘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의 차이콥스키 교향곡 중 가장 화려한 <교향곡 제5번>을 지휘하고, KBS교향악단 감독 재임 시 말러 사이클을 선보였던 요엘 레비는 그 중 가장 호평을 받았던 말러 <교향곡 제6번>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 여기에 첼리스트 출신 지휘자 장한나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지휘하며 웅장한 피날레로 창단 70주년 무대의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창단 70주년을 맞아 특별히 준비된 공연으로는 특별연주회와 정명훈이 선보이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의 콘서트 버전 공연이 특히 돋보인다. 비제 <카르멘> 공연은 관현악뿐 아니라 오페라 지휘자로서 탁월한 정명훈의 오페라 지휘를 볼 수 있는 매우 귀한 무대라 할 수 있다. 정명훈은 지난 1997년 제482회 정기연주회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오텔로>를 한국 최초로 콘서트 형식으로 선보인바 있는데, 그로부터 29년이 지난 이번 시즌에 다시금 KBS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으로 오페라 거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거장 연주자로부터 차세대 주역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 주목 받는 명연주자들이 KBS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다. 현재 최고의 연주력으로 세계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와 프랑크 페터 짐머만, 첼리스트 스티븐 이설리스 등 세계 최정상급 현악 거장들이 출연해서 눈길을 끌고, 피아니스트 보리스 길트버그, 쇼팽 콩쿠르 우승자 브루스 리우, 롱 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자 김세현 등, 세계 무대에서 돋보이는 피아니스트들이 KBS교향악단과 함께 무대에 선다. 또한 정명훈의 말러 교향곡 공연에 출연하는 세계 정상급 성악가 마티아스 괴르네와 크리스티아네 카르크의 출연도 주목할 만하다.

Special Article III Recent Highlights

제10대 음악감독 정명훈 지휘자 선임

KBS교향악단은 2025년 공식이었던 상임지휘자 직위를 채울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정명훈 지휘자를 선임했다. 2018년 첫 협연 이후 꾸준히 무대를 함께하며 음악적 호흡을 이어온 그는 2021년 계관지휘자로 위촉되며 오케스트라와의 예술적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해왔다. 또한 2027년부터 라 스칼라 차기 음악감독으로 활동할 예정으로,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KBS교향악단의 예술적 방향을 폭넓게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선임은 KBS교향악단이 창단 70주년을 앞두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얼굴들

2025년 신입단원 채용을 통해 새로운 음악가 세 명이 KBS교향악단에 합류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공개 오디션 결과, 제2바이올린 파트에 김시연 단원, 클라리넷 부수석에 이하늘 단원, 호른 파트에는 장수정 단원이 입단했다. 세 단원 모두 다양한 연주 경험과 탄탄한 실력을 갖춘 연주자로, 앞으로 오케스트라의 사운드와 에너지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KBS교향악단은 매년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며 연주력의 질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 20만 명 돌파

KBS교향악단 공식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채널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24년 5월 10만 명 달성 직후 단 한 달 만에 14만 명을 기록하며 아시아 1위 채널로 올라선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와 약 1년 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 누적 조회수는 7,750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 ‘궁예 레퀴엠’, ‘강호동 협주곡’, ‘김종민 협주곡’ 등 위트 있는 쏫폼 시리즈는 MZ세대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며 교향악단의 디지털 소통을 새롭게 확장했다. 클래식 음악의 문턱을 낮춘 이러한 시도는 KBS교향악단이 디지털 시대에 구축한 독창적 브랜드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 성료 및 지역 확대

2024년 9월 첫 선을 보인 KBS교향악단의 ‘임산부를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가 2025년에는 여의도 KBS교향악단 리허설룸에서 총 5회 진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예비 산모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은 부드러운 곡들로 구성되었고, ‘부모는 아기의 뇌 설계자’의 저자인 조용상 교수의 전문 강연이 더해져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여기에 유한킴벌리(‘하거스 허그박스’), 일동후디스(트루맘 산양분유 박스), 비건 인종 클린 뷰티 브랜드 이노앙(바스앤샴푸·수딩젤로션), 닥터맘 산모도우미(아기용 매쉬베개) 등 4개사가 후원으로 참여해 풍성함을 더했으며, 후원 물품은 참석 산모 전원에게 전달됐다. 행사 이후 “음악이 주는 안정감이 컸다”는 메시지와 감사 인사가 이어지며 임산부 음악회의 의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2026년에는 서울 외 지역에서도 초청이 이어지며 프로그램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



2026.1.16. FRI 20:00
롯데콘서트홀

차이콥스키/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P. I. Tchaikovsky /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 35

베토벤/교향곡 제3번 E♭장조, 작품 55 '영웅'
L. v. Beethoven / Symphony No.3 in E-flat Major, Op. 55 'Eroica'

지휘 정명훈
Myung-Whun Chung
Conductor

바이올린 레오니다스 카바코스
Leonidas Kavakos
Violin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영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최정상급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쿠크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이승환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지현 이수연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시연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심수연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이하늘 ^{부수석}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장수정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김성수 ^{부수석}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객원수석

악장	Liviu Prunaru (前 콘서트헤바우 악장)
플루트	한여진 ^{수석}
호른	이석준 ^{수석}

한국예술종합학교인턴십3기

제1바이올린	권예진 김가연
제2바이올린	박선경 임정민
비올라	송경민 이태형
첼로	신소담
바순	심충현
호른	선수경
트럼펫	박찬영
트롬본	임상원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이황선 KBS 예능센터장
			하종란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 자산운용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도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종운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김희진 포크가수, DJ 고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영은 KBS 보도본부 기자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도식 법무법인 해자현 대표 변호사 윤종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규혜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웅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식 대표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희재 노무사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옥 전)KBS교향악단 사장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운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한국산업은행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재록 (주)석교디앤디 대표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황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9 BLOCK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4년 당신을 지지해온
섀리 포스터피딕
Life ON Sealy

